



iM DiGital Banker Academy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젝트 기획서

1. 팀 소개

팀명	iM ONEderful
팀원 명	김수민, 나효상, 배수원, 서범창
주제	통합 세그먼트 레이더
요약	성장 예측과 리스크 조기탐지, FX 레짐 기반 특화 운영

2.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수민	Project Manager 및 모델 개발 및 인사이트
나효상	데이터 수집, EDA, Fullstack
배수원	문서화, 시각화
서범창	모델개발, EDA, Fullstack

3. 추진 일정

4. 제안 내용

기획 배경

최근 금융시장은 금리·경기·정책 변화뿐 아니라 대외 변수(환율·무역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법인 고객의 예금·대출·결제·채널 이용 패턴이 짧은 기간 내 크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월 실적을 확인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제한된 영업/마케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

특히 법인 고객은 업종·지역·등급에 따라 금융 니즈와 반응 시점이 다르므로, 동일한 캠페인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세그먼트 단위로 성장 기회와 리스크(이탈/활동성 둔화)를 동시에 조기 인지하고, 실행 가능한 액션으로 연결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외환/무역금융 영역은 환율 국면(추세·변동성)에 따라 기회와 리스크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 운영 체계 위에 FX 특화 레이더 모듈을 결합할 경우 고가치 세그먼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수익 기회 확대가 가능하다.

본 프로젝트는 이를 위해 예측-조기경보-원인 설명-액션 추천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세그먼트 운영 레이더를 구축하고, 그 확장으로 환율 국면 기반 FX Opportunity & Risk Radar 를 제공하여 범용 운영 역량과 도메인 특화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황

현업 운영은 대체로 월간/분기 실적 리포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표 변동의 원인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이 담당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세그먼트별로 실적 둔화나 이탈 조짐이 나타나더라도 발생 이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대응 또한 “전체 대상 프로모션 확대” 등 범용 처방으로 귀결되기 쉽다.

또한 예금/대출/카드/채널 등 기능 조직별로 운영 목표와 캠페인이 분절적으로 실행되면서, 동일 세그먼트에 대한 메시지·혜택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세그먼트를 이번 달에 먼저 관리할지에 대한 우선순위 체계가 약해, 자원 배분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불어 금리·휴일·계절성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를 반영해 사전에 변화를 예측하고 경보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외환/무역금융 운영은 이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환율 급변 시 RM/담당 조직이 개별 모니터링과 경험적 판단으로 대응하는 비중이 크고, 환율 국면(변동성 확대/축소, 추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인식해 세그먼트를 선별 관리하는 구조가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회 세그먼트 선점과 리스크 신호 조기 포착이 어렵고, 실행 타이밍이 늦어져 영업 효율과 고객 경험 측면의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목표

본 프로젝트는 세그먼트 단위로 성장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레이더(메인) + FX 특화 모듈(확장)을 통합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메인: 세그먼트 성장·리스크 레이더 구축

- **성장 예측 체계 마련:** 세그먼트별 주요 KPI 의 다음 1~3 개월 변화를 예측하여, "성장 가능 세그먼트"를 선제적으로 식별한다.
- **조기경보(이상징후/변곡) 운영화:** 예측 대비 실적 이탈, 급감/급증, 추세 꺾임 등을 탐지해 "이번 달 주의 세그먼트" 워치리스트를 자동 생성한다.
- **원인 설명 기능 내재화:** 외부 변수(금리/달력 등)와 내부 지표 변화를 결합해 "왜 변했는지"를 설명 가능한 근거(드라이버 요약)로 제공한다.
- **Next Best Action 제안:** 세그먼트 상태(성장/리스크/원인)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캠페인/영업 액션을 우선순위로 추천하여 의사결정→실행을 단축한다.
- **운영 산출물 표준화:** 대시보드와 월간 운영 리포트(1 페이지 요약)를 통해 반복 가능한 운영 루프(점검→대응→평가)를 정착시킨다.

2) 확장: FX Opportunity & Risk Radar 모듈 제공

- **환율 국면(레짐) 인식 체계 구축:** 환율 수준·변동성·추세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 국면을 정의하고, 세그먼트 반응을 국면별로 해석 가능한 구조로 만든다.
- **FX 기회/리스크 스코어링:** 수출입 활동 강도·성장 모멘텀·현금흐름/여신 여력 등을 결합해 세그먼트별 Opportunity/Risk 점수를 산출한다.
- **FX 이상징후 조기경보:** 환율 국면 변화와 연동하여 FX 실적의 급감/변곡, 현금흐름 스트레스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경보 체계를 구현한다.
- **국면 기반 액션 추천:** 환율 국면과 세그먼트 상태에 맞춘 환전/정산/무역금융/환리스크 관리 등의 제안을 TOP-K로 제공하여 RM 실행력을 강화한다.
- **메인 엔진과의 일관 운영:** 메인 레이더에서 사용한 예측·경보·설명·추천 구조를 재사용하되, FX 영역에 필요한 외부 변수와 규칙을 추가하여 확장성을 확보한다.